미래창조과학부 장 · 차관 3명, 청와대 미래전략수석…그들은 누구?

최문기 장관,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이상목 제1차관, 윤종록 제2차관

글_**안경애** 디지털타임즈 생활과학부 차장 naturean@dt.co.kr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62)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0년 넘게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종사해온 전문가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주역 중 하나다.

1969년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공대 응용수학과를 거쳐 KAIST 산업공학과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석 · 박사학위를 받은 최 장관은 첫 직장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해 21년 동안 근무했다. 통신시스템연구단장, 광대역통신연구부장, 초고속정보통신부장, 인터넷 기술연구부장 등을 지내면서 네트워크 전문가로 활약했고, 전전자교환기(TDX)와 CDMA 개발의 주역으로 인터넷 및 이동통신 강국 도약을 이끌었다.

한국정보통신대(ICU)가 개교하면서 1999년 ICU 경영학부 교수로 몸담았다가 2006년 ETRI 원장으로 취임했고, 2009년에는 KAIST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ETRI 원장 재직시절 최 장관은 기술마케팅과 시장창출형 R&D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기술기획 단계부터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고 기술개발의 전 단계에서 기술가치 평가를 실시해 개발한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마케팅 조직을 상용화 전담조직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 국제표준화를 통해 세계 최고 IT R&D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기술사업화의 전진기지인 연구소기업을 매년 1개씩 발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당시의 경영철학은 미래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창업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창조경제 정책은 무엇보다 '시장'과 'R&D'의 거리를 좁혀야만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관 취임사에서도 "이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혁신적 경제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생산성 향상과 함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최순홍(63)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에서 30여 년간 IT 관련 업무를 맡아온 IT 전문가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서강대 출신이면서 전자공학과 1년 선후배 사이기도 하다.

최 수석은 대학 졸업 후 미 조지워싱턴대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학위, 공공정책학 박사학위를 받고,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 와튼스쿨 MBA 과정도 거쳤다.

이후 1981년 IMF에 입사해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IMF의 특성상 중요한 각종 경제예측모델 구축도 주도했다. 2004년에는 IMF에서 근무한 한국인이 맡은 보직 중 가장 높은 정보통신기술실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2007년에 유엔 사무국 초대 정보통신기술국장에 선임돼 지난해 8월까지 유엔의 IT 현대화 프로젝트를 이끌어 사무국 업무 효율화와 프로세스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대학졸업 후 끊어졌던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2000년대 중반 다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IMF에 재직 중 국내에 잠시 들어왔다가 지인들의 소개로 박 당선인과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누고 ICT 관련 이슈와 흐름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후 유엔 근무를 마친 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대위 과학기술특보로 임명돼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을 돕기 시작했다. 임명 후 그는 "미래 전략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정보통신기술과 산업에 접목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증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정보를 대폭 개방해 창조경제와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공공정보를 폭넓게 개방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국민행복기술을 만들겠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창업과 새시장 창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이상목(58)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과학기술처 시절부터 과학기술 분야에 30년 이상 몸담으며 요직을 두루 거친, 자타가 공인하는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다. 과학기술 학회 및 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을 결성하고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아이디어 제시와 과학기술계의 의견 전달에도 부지런히 나서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창조경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물밑 지원했다.

이 차관의 평소 업무 스타일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폭넓게 반영하면서도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책임은 스스로 지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 생활에서 다소 손해를 보는 일도 있었지만 부하직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았다.

이 차관의 행정경험과 추진력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래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현장에 착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관 취임 후에 이 차관은 과학기술과 ICT간 융합을 위해 먼저 한발 양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래부 인사에서도 이런 이 차관의 의지가 반영됐다.

1973년 경복고를 졸업해 79년 연세대와 86년 KAIST에서 각각 토목공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다. 13회 기술고시 출신으로, 1980년 과학기술처 대덕단지관리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과학기술처 인력개발과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종합조정과장과 공보관, 기초연구국장을 거쳐 2010년 3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역임하며 굵직한 정책들을 입안 · 추진해왔다.

올해 초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사업은 이 차관이 전략기술개발과장 시절 실무를 맡았고, 과학기술정책실장 당시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초석을 다졌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윤종록(56)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키워드인 '창조경제' 아이디어와 콘텐츠 발굴에 주요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미래부 차관 취임 이후에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자원이 없는 것이 축복이었다."며 "한국도 같은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다 국민들이 명석한 두뇌를 갖춘 만큼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을 갖췄다"고 강조한다.

최문기 장관 취임식에서 미래부 직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 앞에서 창조경제 관련 강연을 할 정도로 윤 차관은 정부 내 '창조경제 전도사'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광주고와 항공대 항공통신공학과, 연세대 산업대학원(전자공학 석사)을 나온 윤 차관은 1980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옛 체신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1983년 한국통신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 이후 25년 이상 KT에서 몸담았다. KT에서는 정부와 우리나라 통신망 현대화를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전문가로 꼽힌다.

국제기술설계협회(IEC) 이사회 임원, 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 회장,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KT의 신사업 담당 부사장을 지낸 뒤 미 벨연구소 특임연구원을 지냈다.

윤 차관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경제성장의 비결을 담은 「창업국가」를 2010년 번역 출간하면서부터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2011년 한 행사에서 창업경제, 창의국가 관련 주제발표를 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창조경제 정책 주요 입안자로 부상했다. ST